

推奴系 野談의 小說化와 〈殺身成仁〉

정 준 식*

차 례

- | | |
|---------------------|--------------------|
| I. 들머리 | IV. 〈살신성인〉의 의의와 한계 |
| II. 추노계 야담과 〈살신성인〉 | V. 마무리 |
| III. 〈살신성인〉의 구조와 의미 | |

1. 들머리

조선후기 18·9세기는 중세사회의 해체 및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동되어 갔던 이른바 변혁의 시기였다. 이 시기 사회의 각 부면에서 전개된 다양한 현상 중의 하나가 신분제의 동요 내지 해체이다. 특히 중세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축이었던 노비제의 동요는 조선후기 신분제의 해체를 더욱 촉진하는 구실을 하였다.

노비의 도망과 이들에 대한 추쇄는 이미 조선전기부터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도망노비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主人家에서의 추쇄도 자연 활발해졌다. 그러다 보니 도망노비의 추쇄에 따른 갖가지의 비리와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강사

으며, 이를 빌미로 사노비의 추쇄에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검토하게 될 <殺身成仁>은 도망한 노비의 추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主-奴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같은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사문학 작품을 '推奴譚'이라 하며, 야담에만 국한할 때 이를 '推奴系 野談'이라 한다.¹⁾ 이렇게 볼 때 <살신성인>은 추노담의 서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작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살신성인>이 추노계 야담의 서사구조를 취해 소설화된 작품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살신성인>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추노계 야담을 검토하여 <살신성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되는 야담 작품을 추정하기로 한다. 3장에서는 <살신성인>의 구조와 의미를 밝힘으로써 추노계 소설로서의 <살신성인>의 실상을 확인해 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추노담의 전승에서 <살신성인>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노담의 서사적 전통이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 소설로 이행되는 모습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노계 야담과 <살신성인>

<殺身成仁>은 1906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帝國新聞』에 연재된 작자 미상의 소설이다.²⁾ 『제국신문』 1906년 10월 22일자 3면에 보면 이 작품의 표제가 “(小說) 殺身成仁”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단 1906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연재된 후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단되었다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시 그 나머지 부분이 연재되었다. 이처럼 <살신성인>은 『제국신문』에 총 8일에 걸쳐 연재된 작품으로 그 분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1)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초전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동간행위원회, 1995), 451~452쪽.

2) 韓元永, 『韓國 開化期 新聞連載小說研究』(一志社, 1990), 131쪽.

그런데 이 작품은 조선후기에 전승·향유된 추노계 야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이들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노계 야담은 조선후기의 각종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 수도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이들은 대체로 (㉠)주인의 추노행차, (㉡)노비의 주인살해 음모, (㉢)주인의 위기모면, (㉣)추노의 결과라는 네 개의 단락을 공유하고 있다. 단락 (㉠)(㉡)에는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고 이들에 대한 主人家에서의 추쇄가 빈번했던 조선후기의 역사적 현실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비해 단락 (㉢)(㉣)에는 主-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의 낭만적인 장치가 동원되어 있다.

추노계 야담 중에서 <살신성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작품은 <復讐說>³⁾이다. <復讐說>은 <有窮士推叛奴>(『靑橋別集』), <京中士人沈姓者>(『鶴山閑言』), <乞父命忠婢完三節>(『靑邱野談』)과 함께, 반노에게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이 반노 딸의 변장을 통한 대리 죽음으로 구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 주인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의 동일성 때문에 위의 작품들은 추노계 야담의 한 하위 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그같은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복수설>은 다음과 같이 나머지 세 작품과 변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복수설>의 서두에는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추노를 나간 주인이 반노에게 살해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다. 말하자면 1차 추노의 실패인 셈이다. 그리고 부친이 반노에게 살해된 다음 그의 아들이 성장하여 2차 추노를 단행하는데, 이 2차 추노는 부친을 살해한 반노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추노의 주체가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면서 추노의 목적이 '가난타개→복수'로 변이되는 모습은 다른 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수설>만의 특징이다.

둘째, <복수설>에는 2차 추노를 나간 주인의 아들이 반노의 딸과 혼인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다른 세 작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3) <復讐說>은 李光庭(1674~1756)의 『訥隱集』卷6 雜著에 실려 있다. 여기서는 啓明文化社에서 影印한 『訥隱集』一, 425~428쪽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기로 한다.

4) 이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제15집(한국문학회, 1994), 187~192쪽을 참조할 것.

없다. <복수설>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호남의 어느 고을을 걸식하며 다니다가 한 선비를 만나 그의 집에 의탁하여 글을 배우며 지낸다. 그가 성장하자 선비는 그를 이웃에 사는 良家의 딸과 혼인시켰다. 이처럼 주인의 아들과 반노의 딸 사이의 혼인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추노계 야담은 <복수설> 뿐이다.

셋째, <복수설>은 아들의 신분이 반노에게 노출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세 작품에는 이 부분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복수설>에서 주인의 아들이 반노의 사위가 된 다음, 하루는 그의 장인이 다른 사람과 송사할 일이 있어 집안에 감추어 둔 雜文書를 사위에게 보이며 소용되는 것을 고르게 했다. 그런데 그 문서는 아들의 부친이 손수 쓴 것으로 부친의 성명과 필적이 갖추어져 있었다. 아들이 매우 놀라 이 사실을 선비에게 몰래 알렸는데, 그것이 발미가 되어 반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복수설>은 다른 세 작품과 달리 주인의 신분노출 과정 및 죽을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復讐說>은 <有窮士推叛奴>, <京中士人沈姓者>, <乞父命忠婢完三節>과 함께 주인의 위기모면 방법에 있어서 '반노 딸의 변장을 통한 대리회생'이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복수설>만의 독자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복수설>의 이같은 특징은 <살신성인>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주인이 추노를 나가게 된 동기 및 주인이 반노들에게 살해되는 상황을 보면 <살신성인>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곽씨 가세 빈궁하야 말못된 리력과 허산구완홀 계획이 업는 슈말을 말하며 왈 너의가 이럿케 와서 살아 도망호 신세가 평심 마음을 노치못홀 거시라 그런고로 너가 문셔를 가지고 와서 아주 탕척하야 주고 너의 의향더로 허산구완홀 거리나 주면 피츠의 요흔 일이기로 왓스니 생각하라 혼디 만득이 부부가 밋우 감사호 모양을 보이며 편안이 쉬기를 당부호고 밤에 더의 부쳐 의론호기를 더 곱가가 우리에게 큰 화근이니 이제 즈연이 왓스니 이는 하놀이 우리로 호야금 후환을 업시호고 잘 살게 홀이라 호고 김흔 밤에 곱씨를 죽여 그 압 런못에 던지니 누가 곱씨의 원역히 죽은 일을 알니요⁵⁾

위의 인용문에는 郭氏의 가세가 빈궁하여 부인의 해산구완을 할 제책도 세우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광씨는 부인의 해산구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비문서를 가지고 先代에 도망한 만득이란 종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만득은 주인의 來訪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화근으로 여겼다. 주인을 그대로 보내면 언제든지 자기의 종적이 탄로되고 재산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예 주인을 죽여 후환을 없애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광씨를 살해하여 연못에 던졌던 것이다. 그런데 1차 추노를 나간 주인 광씨가 반노들에게 살해되어 돌아오지 않자, 곧이어 그의 아들 郭童이 2차 추노를 단행한다. 광씨의 1차 추노가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광동의 2차 추노는 부친을 살해한 반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되었다. 이처럼 <살신성인>에서 추노의 주체가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면서 추노의 목적이 '가난타개→복수'로 변이되는 모습은 앞서 확인한 <복수설>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둘째, <살신성인>에는 2차 추노를 나간 광동이 반노의 딸과 혼인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광동은 어미에게서 부친이 살해된 연고를 듣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만득이 사는 마을 근처의 한 서당을 찾아갔다. 그는 서당의 선생에게서 15, 6년 전에 광동의 부친인 듯한 사람이 그곳을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그 서당에 머물면서 글공부를 하게 된다. 하루는 광동이 선생의 허락을 얻고 만득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물론 만득에게는 '충청도 사는 박사모인데 일찍 부모를 잃은 데다가 친척이 없어 사방으로 유리걸식하여 다닌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속여 말했다. 그러다가 만득이 광동을 후대하며 사위로 삼으려 하는 바람에 광동을 하는 수 없이 그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 추노계 야담 중에서 이와 같은 혼인과정을 보이고 있는 작품은 <복수설> 뿐이다. 다만 <복수설>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선비의 주선으로 우연히 반노의 딸과 혼인하는 데 반해, <살신성인>의 광동은 직접 반노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 선생 몰래 반노에게 접근하여 그의 딸과 의도적으로 혼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복수를 위한 정략 결혼

5) 「제국신문」, 1906년 10월 22일. 원문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하였으며 이하 원문 인용시에는 이를 일일이 밝히지 않겠다.

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셋째, <살신성인>에는 2차 추노를 나간 광동이 반노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광동은 만득의 딸과 혼인한 다음 어느날 서당 선생을 방문하여 그 사실을 말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만득의 막내 아들이 몰래 광동을 따라가서, 광동과 서당 선생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다가 광동의 신분을 알게 된다. 광동의 신분이 알려지자 만득은 “이놈이 제 으비 원수를 갚기 위하여 생명을 변하고 온 일이 의심업거늘 우리가 속아서 스의를 삼았스니 세상에 이런 변괴가 어디 잇스리오”⁶⁾라며 통분해 마지않다가, 마침내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기로 결심한다. 추노계 야담 중에서 이같은 신분노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은 <복수설> 뿐이다.

지금까지 <복수설>과 <살신성인>이 공유하고 있는 몇몇 특징적인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장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 추노계 야담 중 <살신성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 작품이 <복수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필자는 여기서 <살신성인>이 <복수설>을 근간으로 취해 소설화된 작품일 것이라 추정해 본다.

원래 <복수설>은 17세기 당시 여항에 널리 떠돌던 추노담을 訥隱 李光庭이 기록으로 정착시킨 작품이다. 이광정은 이 이야기가 傳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알 수 없지만, 전하는 이야기가 매우 많고 오래되었는데도 異說이 없는 점을 들어 그것이 허구가 아닐 것이라 보고 있다.⁷⁾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복수설>과 유사한 이야기가 安錫徽·辛敦復에 의해 <有窮士推叛奴>, <京中士人沈姓者>로 각각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동일한 實事에 근원을 두고 형성된 어떤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구연·전승되면서 나름의 변이과정을 겪은 후 기록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⁸⁾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수설>에는 다른 두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 몇몇 삽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작품의 주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복수설>의 이러한 특징은 <살

6) 「제국신문」 1906년 10월 31일.

7) 李光庭, 『訥隱集』 卷6, <復讐說>, “但其事 出於傳聞 不知其是與否 而傳之者愈多 愈久而不異口 豈虛也哉 惟不知其姓與名 無文字可据而信者 不得序次爲傳”

8) 정준식(1994), 앞의 논문, 187~188쪽.

신성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국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성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국신문」에는 총 12편의 소설이 국문으로 연재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선조 한문소설을 번역한 작품이거나 설화와 소설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들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許生傳>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殺身成仁>, <正己及人>, <報應昭昭>, <犬馬忠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조선 후기 야담집 소재의 한문단편을 적절히 번안하여 연재한 작품이다.⁹⁾ 야담집 소재의 작품들을 빌려오면서 크게 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화인지 소설인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작품으로 연구자들에게 비취졌던 것이다.¹⁰⁾ 개화기 신문연재소설 중에는 이런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살신성인>은 바로 그같은 추세 속에서 <복수설>류의 추노계 야담을 번안하는 가운데 형성된 소설이라 추정된다.

3. <살신성인>의 구조와 의미

앞 장에서 <살신성인>이 <복수설>류의 추노계 야담을 근간으로 취해 소설화된 작품일 가능성을 밝혔다. 이제 여기서는 <살신성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혀보기로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추노계 소설로서의 <살신성인>의 실상을 파악함은 물론, 그것이 <복수설>과 맺고있는 관련성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살신성인>의 줄거리를 단락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이전에 현풍 땅에 광씨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의 해산일이 다가왔으나 가난하여 쌀 한 되도 마련할 수 없었다.
- (2) 광씨가 해산구원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망노비 만득을 찾

9) 이들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재의 전통성, 짧은 분량, 작품 말미에 첨부된 평결부분 등이 조선 후기 야담과의 친연성을 방증해 준다.

10)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일조각, 1972), 66쪽.

아갔다.

- (3) 만득이 광씨를 후대하는 척 하다가 몰래 그를 죽여 연못에 던졌다.
- (4) 광씨 부인은 동네 사람들의 구완으로 광동을 낳고 방아팜과 침선으로 겨우 연명하였다.
- (5) 광동이 자라서 서당에 다녔는데, 아이들이 광동을 애비없는 자식이라며 조롱하였다.
- (6) 광동이 어미에게 부친의 연고를 묻자, 광씨 부인이 사실을 말해주며 부친의 원수를 갓으라고 당부하다.
- (7) 광동이 집을 나와 다니다가 한 서당에 들어가서 선생으로부터 자기 부친이 그곳을 다녀간 내력을 듣고는 서당에 머물며 공부를 하였다.
- (8) 하루는 광동이 만득의 집을 찾아갔는데, 만득이 광동을 후대하며 사위로 삼고자 하여 광동이 만득의 딸과 혼인하다.
- (9) 광동이 서당 선생을 찾아가 혼인한 내력을 말하고 왔는데, 만득의 막내 아들이 몰래 뒤따라 갔다가 광동의 신분을 알고 만득에게 알리다.
- (10) 만득이 광동을 죽여 후환을 없애려 하자, 만득의 딸이 변장하고 광동 대신 죽음으로써 광동을 무사히 도망치게 하다.
- (11) 광동이 싹에 고변하여 반노 일당을 모두 잡아 처벌하되, 신부의 소원대로 만득의 막내 아들만은 살려주었다.
- (12) 나라에서는 신부를 위해 정문을 내려 주었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살신성인>은 모두 1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락 (1)은 서두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대신 “이전”이라고만 되어 있어 설화의 일반적인 배경설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작품에서 주인 광씨는 부모 형제도 없이 부인과 함께 가난하게 살면서도 글이나 읽을 줄 알았지 농사일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서두부는 <복수설>이 <살신성인>으로 소설화되면서 설정된 것으로서, 주인의 몰락상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조선후기의 몰락 양반들 중에는 이와 같은 부류에 드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정치적 몰락과 경제적 궁핍을 동시에 겪으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도망노비를 찾아가서 贖錢이나 身賁을 거두어 오는 것으로 가난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추도담에 등장하는 주인은 대체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살신성인>의 주인 광씨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부인의 해산일이 다가오는 데도 그를 구완할 계획이 없자, 광씨는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도망노비의 추쇄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락 (2)는 바로 그같은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도망노비를 찾아간 주인은 한결같이 반노들에게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노비추쇄를 통해 가난을 타개하겠다는 주인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조선시대의 몰락양반 중에는 도망노비를 추쇄하러 갔다가 이같은 위기에 빠져 반노에게 살해되거나 겨우 목숨을 구해 돌아온 사건이 빈발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살신성인>의 단락 (3)에는 그같은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광씨는 노비문서만 들고 단신으로 도망노비 만득을 찾아갔다가 그에게 살해되어 연못에 던져지게 된다. 만득이 주인 광씨를 살해하게 된 배경에는 몰래 도망하여 이룬 신분상승과 경제적 富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¹²⁾

이 부분에 이르러 主-奴 갈등이 가장 첨예화된 모습을 보이다가, 주인이 반노들에게 살해됨으로써 일단 그 갈등은 반노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앞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살신성인>의 主-奴 갈등은 두 번 반복된다. 1차로 추노를 나간 광씨가 반노들에게 살해되자, 그의 아들 광동이 곧이어 2차 추노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1차 추노의 목적이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는 것이라면, 2차 추노의 목적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이다.

단락 (4)(5)(6)은 바로 이같은 2차 추노를 위한 전 단계로 마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원래 <복수설>에는 없던 내용으로, <복수설>이 <살신성인>으로 소설화되면서 첨가된 것이다. 편모 슬하의 어린 아들이 서당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애비없는 자식이라 놀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구전설화에서 흔히 발견된다. 때문에 <살신성인>의 이 부분은 당시에 구전되던 설화를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광동은 아버지가 반노들에게 살해된 후에 태어난 유복자이다. 광씨 부인은 방아품과 침선으로 연명하면서 어렵게 광동을 키워 서당에

11)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95)에는 조선전기의 사례가,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89)에는 조선후기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12) “만득이 부부가 미우 감상한 모양을 보이며 편안이 쉬기를 당부하고 밤에 더의 부처 의문호기를 더 광가가 우리에게 큰 화근이니 이제 즈언이 왔스니 이는 하늘이 우리로 호야금 후환을 업시하고 잘 살게 흠이라”(1906년 10월 22일)는 문맥을 통해 이같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보냈는데, 서당의 아이들이 광동을 애비없는 자식이라 조롱하였다. 이에 광동이 어미에게 부친의 연고를 묻자, 광씨 부인은 하는 수 없이 광동의 아버지이자 노비들에게 살해된 사실을 알려 주며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 당부한다.

단락 (7)은 主人家에서의 2차 추노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광동은 15, 6세가 되자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사방으로 유리걸식하며 다닌다. 그러다가 만득이 사는 마을의 근처에까지 이르러 한 서당을 찾아 들어간다. 광동은 서당 선생에게서 15, 6년 전에 그 서당을 다녀간 사람이 광동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자기 부친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에 광동은 부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생의 허락을 얻어 서당에 머물며 공부를 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광동이 도망노비인 만득의 종적을 탐지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락 (8)은 만득의 집을 탐지한 광동이 의도적으로 만득을 찾아가서 그의 사위가 되는 부분이다. 광동은 거주 성명을 묻는 만득에게 “충청도 사신 박아모요 일즉 부모를 여회고 또 강근헌 친척이 업서 스방으로 류리하야 단이노라”¹³⁾며 자신의 신분을 속여 말했다. 이에 만득은 아무 의심없이 광동을 후대하며 그의 딸과 혼인시켰다. 아래의 예문에는 만득이 자기 딸을 광동과 혼인시킨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원리 만득이 즈너가 여럿시 잇스되 만년에 나혼 딸 한나이 잇스니 방년이 이팔에 용모 비범하고 또 칠팔세 된 만득즈 혼나히 잇는지라 광동의 용모 단아한 거슬 보고 마암의 흥모하야 집안 사람들이 공론하기를 우리가 아모리 도망하야 이곳에 와서 천역을 면하얏스나 누가 량반으로 더점 혼자 업스즉 이제 너야의 혼인을 량반과 결혼홀 슈 업고 또 평민과 결혼코져 혼즉 즈칭 힘세호노라 혼는 테통이 되지 못하얏는디 이제 더 아히를 본즉 필경 미천한 사람의 즈손은 안이니 너야와 혼인하야 경괴스대부와 혼인하얏다 하던 우리 모량이 얼마 나홀 터이니 그리하자¹⁴⁾

위의 인용문을 보면, 만득은 主人家에서 도망하여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려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양반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도망노비들은 主人家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살면서 이

13) 「제국신문」 1906년 10월 25일.

14) 「제국신문」 1906년 10월 25일.

같은 방법으로 신분을 모칭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분상승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¹⁵⁾ 이런 현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만득은 자기 딸을 양반의 자제로 보이는 광동과 혼인시켰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보다 확고히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다.

단락 (9)(10)은 광동의 신분이 탄로되어 반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만득의 딸이 남장을 하고 광동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광동을 무사히 살려내는 부분이다. 광동은 만득의 딸과 혼인한 후에 서당을 찾아가서 선생에게 만득의 딸과 혼인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선생은 “량반이 아모리 죽게 되었기로 현 풍 광씨가 오모의 집으로 장가를 든단 말이나”¹⁶⁾라며 광동을 꾸짖었다. 그런데 광동이 서당으로 갈 때 만득의 막내 아들이 몰래 광동을 따라갔다가 서당 선생이 광동에게 ‘현풍 광씨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곧장 집으로 달려와서 만득에게 그 사실을 일러바쳤다. 이렇게 하여 광동의 신분이 탄로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만득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만득의 부부가 그 말을 듣고 대경호야 왓 이놈이 현풍 광가로다 이제 년도를 상고호건디 아모 희 년분에 광가가 희산구완 호깃다고 호더니 이제 이놈의 나이 얼마인즉 그씨에 나온 즈식이 이놈일시 분명호디 이놈이 제 오비 원슈를 감기위호야 성명을 변호고 온 일이 의심업거늘 우리가 속아서 소위를 삼앗스니 세상에 이런 변괴가 어디 잇스리오 그러호나 그놈의 집에 소위 남즈라고는 이놈만 업시호면 다시는 업슬거술 아는 바니 속히 처치호야 후환을 더러 업시호고 우리가 더더로 량민이 되야 잘 살자!¹⁷⁾

위의 인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만득은 처음에 광동의 신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막내 아들의 밀고를 듣고서야 그가 예전에 자기가 살해한 광씨의 아들임을 안다. 만득은 광동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자기들이 대대로 양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광동을 죽이려 든다. 이렇게 하여 다시 한번 主-奴의 갈등이 첨예화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1차 추노에서의 主-奴 갈등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광동이 일방적으로 반노들에게 물리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같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작품에

15) 전형택, 앞의 책, 187쪽.

16) 「제국신문」 1906년 10월 31일.

17) 「제국신문」 1906년 10월 31일.

는 '변장을 통한 대리 죽음'이라는 낭만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는 변장모티프를 수용한 추노계 야담과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지 <복수설>과 <살신성인>만의 특징은 아니다.

만득의 딸은 광동의 신분이 탄로되던 날 밤에 만득이 광동을 죽이기로 계획한 사실을 알고 그 위기를 모면할 방도를 궁리하게 된다. 그러다가 저녁에 광동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그와 옷을 바꾸어 입은 다음,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거든 즉시 문을 열고 나가서 도망하라고 일러 준다. 그리고 다행히 살아나서 반노들을 처벌할 때, 자기의 남동생만은 살려 달라고 당부한다. 물론 만득의 딸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적지 않았다. 부모를 살릴 것인가 남편 겸 상전을 살릴 것인가를 두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갈으더 소녀의 미련한 소견으로 심각하건더 란쳐 혼 일이 여러가지온즉 한편으로는 상던이오 한편으로는 가장이오 또 한편으로는 부모인즉 세 가지 일이 모다 턴디간의 더 큼이 업는 강상이라 부모를 살니고져 혼디 상전과 가장이 죽을 거시오 상전과 가장을 살니고져 혼즉 부모가 죽을 거시니 부모를 살니는 것시 가호오릿가 상던과 가장을 살니는 것시 가호오릿가 세 가지 큰 의리를 비교하야 보건더 첫지 상던이 중하고 그 다음은 가장이오 친당부모는 출가의외인이라 상던이나 가장에게 더하야 얼마간 경호오니 불가불 경호거슬 바리고 중한 일을 좃는거시 가홀지라¹⁸⁾

위의 인용문은 <복수설>류의 추노계 야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때문에 추노계 야담이 소설화되면서 덧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개입된 흔적이 보인다. 만득의 딸은 상전을 위한 忠, 가장을 위한 烈, 부모를 위한 孝 사이의 우선 순위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 忠과 烈을 택하게 된다. 이는 출가의외인인 자기에게는 부모보다 남편 겸 상전인 광동이 더 소중하다는 논리이다. 이 부분은 작자가 반노 딸의 열행을 한층 더 부각시켜서 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자가 이 작품의 표제를 “殺身成仁”이라 한 점에 유의해볼

18) 『제국신문』 1906년 11월 2일.

필요가 있다. 원래 이 작품은 <복수설>을 근간으로 취해 소설화된 작품이다. 높은 이광정은 당시에 떠돌던 추노담을 기록으로 정착시키면서 그 표제를 “復讐說”로 삼았다. 그것은 이광정이 <복수설>을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해 그 아들이 복수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신성인>의 작자는 그 작품을 ‘반노의 딸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상전(남편)을 살려낸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그 표제를 “殺身成仁”으로 정한 것이다. 요컨대 <복수설>이 복수의 문제에 초점이 놓인 작품이라면, <살신성인>은 반노 딸의 열행에 초점이 놓인 작품이다. 작자는 그같은 열행을 한층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위의 인용 부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이다.

단락 (11)은 主-奴 갈등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앞서 광동은 순전히 신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여 도망한 다음 곧바로 官에 畝變하였다. 그러자 원님이 즉시 官差를 多發하여 만득의 집에 보내 모든 식구들을 잡아들이게 하고 한 차례 심문을 가하자 그들이 모두 자복하였다. 원님이 그들의 자복에 따라 집 앞의 연못 속에서 15, 6년 전에 살해된 광씨의 시신 및 광동을 위해 죽은 신부의 시신을 건져 올렸다. 곧이어 원님은 만득의 가족을 일일이 법에 따라 처벌하되, 자기를 위해 죽은 신부의 유언에 따라 만득의 막내 아들만은 살려 주었다. 변장모티프를 수용한 추노계 야담과 소설에서는 한결같이 반노의 딸이 주인을 위해 희생한 댓가로 그녀의 아버지를 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는 그 대상이 남동생으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살신성인>의 작자가 <복수설>을 수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작이 단락 (12)와 논리적으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락 (12)는 두 차례에 걸친 主-奴 갈등이 모두 해결된 다음 주인을 위해 희생한 신부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부분이다. 즉 원님의 啓文에 따라 나라에서는 만득의 딸에게 旌門을 하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忠·孝·열의 綱常大義를 한 몸에 구비하였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는 단락 (11)의 내

19) “나라에 계문호야 그 신부를 표양호야 정문을 세웁스되 한 가지는 충로요 한 가지는 효부요 한 가지는 열녀라 그 몸을 죽어 강상대의를 온전히 훈 자 천하에 몇몇치나 되리오”(『제국신문』 1906년 11월 3일).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예로 든 <복수설> 등의 추노계 야담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과 어긋난다. 단락 (11)에서 신부의 부친(만득)은 이미 모반의 주모자로 몰려 관에 의해 처형되었다. 말하자면, 신부는 주인(신랑)을 살려내기 위해 아버지인 만득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으며, 그로 인해 만득이 처형된 것이다. 때문에 단락 (12)에서 신부를 忠·烈을 실천한 인물로 그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거기에다 孝까지 실천한 인물로 그려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와 같은 모순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마도 <살신성인>의 작자가 단락 (11)을 의도적으로 개작하면서 단락 (12)를 거기에 맞게 고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살신성인>은 기본적으로 추노계 야담 <복수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면서 나름대로의 변용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내용면에서 보면, 단락 (1)(4)(5)(6)은 <복수설>에 없던 내용이 새로 첨가된 부분이고, 단락 (7)(8)(9)(11)은 <복수설>의 내용을 조금씩 개작한 부분이다. 그리고 주제적 측면에서 보면, <복수설>은 '아버지를 죽인 노비에 대한 아들의 복수'를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놓고 있다. 이는 편자인 이광정이 이 작품을 '복수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비해 <살신성인>은 '주인이 어떻게 死地에서 벗어났느냐'라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주인을 살린 반노 딸의 열행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놓고 있다. <살신성인>의 작자는 광동의 복수가 궁극적으로 반노 딸의 열행 때문에 가능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복수 자체보다 열행을 더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살신성인>의 의의와 한계

<살신성인>은 추노담의 서사적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推奴系 小說이라 이를 만한 작품이다. 추노계 소설이란 추노담의 서사 골격이 작품의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는 일련의 소설을 말한다. 여기에 드는 작품에는 <殺身成仁>을 비롯하여 <金鶴公傳>, <申桂厚傳>, <彈琴臺>, <三綱門>, <金氏南征記> 등이 있다.

이들 중 창작 시기가 가장 앞서는 작품은 <김씨남정기>이다. 이 작품은 당시의 實事를 토대로 삼아 1711년에서 1732년 사이에 창작되었으며,²⁰⁾ 이와 동일한 사건을 입전한 權以鎭(1668-1734)의 <金氏傳>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²¹⁾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복수설>류의 추노계 야담을 근간으로 취해 소설화된 작품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발표 및 간행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은 <살신성인>, <탄금대>, <삼강문> 뿐이다. <살신성인>은 작자 미상으로 1906년 10월 22일~11월 3일까지 「제국신문」에 연재되었고, <탄금대>는 이해조의 작품으로 1912년 3월 12일~5월 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으며, <삼강문>은 최찬식의 작품으로 1918년 11월 11일에 덕흥서림에서 초판본이 간행되었다. 한편 <김학공전>은 1910년에 필사된 이본(김동욱 A본)이, <신계후전>은 1915년에 필사된 이본(이화여대 도서관 소장본)이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여기서는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살신성인>, <삼강문> 등 다섯 작품의 관계를 점도함으로써 추노계 소설로서 <살신성인>이 점하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기로 한다.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신성인>은 <복수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다 엄격히 말해 이 작품은 <복수설>의 개작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소설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살신성인>은 추노계 소설 다섯 작품 중 발표 연대가 가장 앞선다. 한편 <살신성인>이 연재되던 1906년에는 「황성신문」에 <신단공안>이 연재되고 있었다. 그 중 제7화인 <어복손전>은 주인과 노비 사이의 신분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노비 어복손은 자신의 신분해방을 위해 전력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²²⁾ 노비의 신분해방 의지와 그 좌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추노계 소설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삼강문>

20) 이명학,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제23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30~31쪽.

21) 이현홍, <김씨남정기>의 소설적 성격, 『초전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동간행위원회, 1995), 355~370쪽.

22) 정환국, <신단공안> 제7화 <魚福孫傳>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등도 1910년대에 필사 혹은 간행되어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10년대에는 주인과 노비 사이의 신분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이 상당히 활발하게 창작·유포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같은 작품들이 창작되고 독자들에게 수용되었을까? 제도적으로는 1894년에 노비제가 폐지되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는 노비의 신분해방이 쉽게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노비는 노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다.²³⁾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비들의 신분해방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을 것이다. 추노계 소설은 바로 이같은 추세 속에서 그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추노담의 서사적 전통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살신성인>이 추노계 소설 내에서 갖는 의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추노계 소설로서는 가장 먼저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점이다.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것은 일단 다수의 독자에게 읽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제국신문』의 구독자가 여성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²⁴⁾ 이 작품이 주로 여성 독자들에게 읽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작품의 표제를 “殺身成仁”이라 하여 반도 딸의 열행에 초점을 맞춘 것도 여성 독자들의 요구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한다.

둘째, <살신성인>을 통해 추노계 아담의 소설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살신성인>은 <김학공전>과 매우 유사한 작품이다. 전자가 1906년에 연재된 것이고 후자가 1910년에 필사된 것이어서 이 둘의 선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지만, 두 작품은 구성 및 내용면에서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 두 작품 모두 <복수설>을 근간으로 삼아 소설화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유사성을 보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살신성인>은 <복수설>의 단순한 개작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작품인데 반해, <김학공전>은 <복수설>을 나름대로 변용하여 이른 바 復讐小説의 수준을 갖추도록 구조화한 작품이다.

셋째, <살신성인>은 그 보다 나중에 나온 추노계 소설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살신성인>보다 늦게 창작된 소설에는 <탄금

23) 평복실, 『조선후기노비제연구』(지식산업사, 1982), 207쪽.

24) 김민주·최민지 공저, 『일제하 민족언론사론』(일월서각, 1978), 11~12쪽.

대>와 <삼강문>이 있다. <탄금대>가 <신계후전>을 근간으로 하여 번안한 작품이라면²⁵⁾, <삼강문>은 <살신성인>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 <복수설>이 <살신성인>으로 소설화되면서 덧붙은 내용들이 <삼강문>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추노계 소설은 <살신성인>, <김학공전>, <삼강문>이 한 계열을 이루고 있고, <신계후전>, <탄금대>가 다른 한 계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복수설>이 <살신성인>과 <김학공전>의 형성에 각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살신성인>은 다시 <삼강문>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경우 <김학공전>을 읽은 독자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신계후전>을 창작한 것으로 보이며, <신계후전>은 다시 <탄금대>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살신성인>은 추노담의 서사적 전통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나름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작품은 <복수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거기에서 몇몇 삽화를 결부시켜 겨우 한 편의 소설이 되도록 얹어 놓았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영성하고 단조로우며 주제적 의미도 선명하지 못하다. 실사에서 비롯된 추노계 야담이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 <살신성인>과 같은 추노계 소설로 이행된 점은 우리 소설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신성인>은 조선 후기 당대에 진행된 主-奴 갈등의 심각성을 철저히 은폐하고 이를 사필귀정·권선징악의 차원으로 호도함으로써 현실인식의 미숙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은 결국 <살신성인>의 소설적 수준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마무리

본고는 <살신성인>이 추노계 야담의 서사구조를 취해 소설화된 작품임에 주목하여, <살신성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야담 작품을 추정하고, <살신성

25) 장진옥, 「신계후전」의 예비적 검토, 『이화어문논집』제9집(이화여대 한국어문학 연구소, 1987), 174~175쪽.

인>의 구조와 의미를 밝힘은 물론, 추노담의 서사적 전통에서 <살신성인>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제 앞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여 마무리로 삼는다.

1. <살신성인>은 추노계 야담 중 <복수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추노의 주체가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면서 추노의 목적이 '가난타개→복수'로 변이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2차 추노를 나간 주인과 반노 딸 사이의 혼인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주인의 신분기 노출되는 과정 및 죽을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은 <복수설>과 <살신성인> 뿐이다. 따라서 <복수설>이 <살신성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된다. 개화기 신문연재소설 중에는 우리의 전통 서사문학을 번역·번안한 작품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살신성인>은 바로 그같은 추세 속에서 <복수설>류의 추노계 야담을 번안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소설이다.

2. <살신성인>은 <복수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면서 나름대로의 변용을 피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면에서 보면, 단락 (1)(4)(5)(6)은 <복수설>에 없던 내용이 새로 첨가된 부분이고, 단락 (7)(8)(9)(11)은 <복수설>의 내용을 조금씩 개작한 부분이다. 그리고 주제적 측면에서 보면, <복수설>은 '아버지를 죽인 노비에 대한 아들의 복수'를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놓고 있다. 이는 편자인 이광정이 이 작품을 '복수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비해 <살신성인>은 '주인이 어떻게 死地에서 벗어났느냐'라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주인을 살린 반노 딸의 열행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놓고 있다. <살신성인>의 작자는 광동의 복수가 궁극적으로 반노 딸의 열행 때문에 가능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복수 자체보다 열행을 더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노계 소설 내에서 <살신성인>이 갖는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살신성인>은 추노계 소설로서는 가장 먼저 신문에 연재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국신문』에 국문으로 연재됨으로써 다수의 여성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②<살신성인>은 <김학공전>과 함께 <복수설>의 영향을 직

접 받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살신성인>을 통해 추노계 야담의 소설 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살신성인>은 그보다 나중에 나온 추노계 소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살신성인>보다 나중에 창작된 추노계 소설에는 <탄금대>와 <삼강문>이 있다. <탄금대>가 <신계후전>을 번안한 작품이라면, <살신성인>은 <삼강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결국 추노계 소설은 <살신성인>, <김학공전>, <삼강문>이 한 계열을 이루고 있고, <신계후전>, <탄금대>가 다른 한 계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은 나름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복수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다 몇몇 삽화를 결부시켜 겨우 한 편의 소설이 되도록 얹어 놓았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엉성하고 단조로우며 주제적 의미도 선명하지 못하다. 實事에서 비롯된 추노계 야담이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 <살신성인>과 같은 추노계 소설로 이행된 점은 우리 소설사에서 매우 이해적이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신성인>은 조선후기 당대에 전개된 主-奴 갈등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이를 사필귀정·권선징악의 차원으로 호도함으로써 현실인식의 미숙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은 결국 <살신성인>의 소설적 수준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